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부모 및 교사 학대의 조절효과 검증*

채진영¹⁾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 및 교사 학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주도 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 한국청소년 안전(보호) 실태조사에 참가한 58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PASW 18.0과 AMOS 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기본적인 자료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고,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통한 조절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Ping (1996)의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부모 및 교사 학대와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부모 및 교사 학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받은 가해행동은 부모 및 교사 학대에 의해 가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괴롭힘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영향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대책마련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요어 : 또래 괴롭힘 피해, 또래 괴롭힘 가해, 부모 학대, 교사 학대, 조절효과

* 이 논문은 2013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교신저자 :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E-mail : jychae@jbnu.ac.kr)

I. 서론

근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가해행동의 수위는 점차 높아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한 지방 교육청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또래 집단에게 당하는 협박, 욕설 같은 언어적 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신체적 폭력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의 또래 괴롭힘은 2010년 대비 1년 사이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2, 2, 10). 또래 괴롭힘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는 또래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은 한 명 또는 한 집단을 대상으로 2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이 행하는 공격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Pikas, 1975)으로, 또래에게 이러한 피해를 가하는 또래 괴롭힘 가해자는 공격성, 죄의식 부족, 적개심, 정서불안, 자기중심성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특징은 성인기의 반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예측변인이 되기도 한다(Tremblay, 2000). 또래 괴롭힘 피해는 한 명 또는 한 명 이상의 또래로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Olweus, 1993)으로, 구타, 발로 차기 등의 폭력적인 신체적 형태, 욕설, 약올리기, 위협 등의 언어적 형태, 소문내기 및 따돌림 등의 사회적 관계 조절하는 형태, 최근에는 휴대폰과 전자메일 등을

이용한 사이버 형태 등으로 나타난다(심희옥, 신유림, 2009; Espelage, Bosworth, & Simon, 2001). 이는 아동후기부터 청소년중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문제인데,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발생하는 만큼 또래 괴롭힘의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은 자존감 저하, 무망감 증가, 위축 및 고립, 등교거부, 불면 등의 정서적·심리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문용린, 이승수, 2010; Carney & Merrel, 2001; Nansel, et al., 2001).

또래 괴롭힘에 관한 그동안의 국내의 연구(김진호, 2009; 방기연, 이규미, 2009; 오승환, 2007)들은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많았는데, 또래 괴롭힘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문용린, 2006; 신희경, 2006). 아동후기부터 청소년 초기의 또래 괴롭힘에 관한 최신 연구(이성식, 전신현, 2011)에 의하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행동 간에는 성별에 상관없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되어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발생한 폭력을 직접 경험하면, 이를 학습하여 비슷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 괴롭힘의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가해행동을 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조유진, 2008)에서 알 수 있듯이, 또래에 의해 자신이 괴롭히는 당하는 순간을 관찰하게 되고 이것이 학

습되어 이후에 다른 또래를 괴롭히는 가해행동으로 나타나는 등 또래 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경험은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애착이론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또래 애착이 발달하는 시기에 또래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경험은 또래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에게 괴롭힘을 가한 공격자에 대한 보복적인 반응으로 다른 또래에게 자신이 경험한 괴롭힘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이다(Sekol & Farrington, 2010). 신희경(2004)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아동은 가해행동을 하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공격욕구가 높음을 관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경험을 한 아동이 공격자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괴롭힘 피해자/가해자(victim/bully)라 하는데(Boulton & Smith, 1994), 피해경험을 바탕으로 가해행동을 행한 집단의 비율이 피해 또는 가해만을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보다 높다는 연구결과(Tritt & Duncan, 1997)를 미루어 볼 때 또래 괴롭힘의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래 괴롭힘을 당한 피해경험이 반드시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그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조유진, 2008). 또래 괴롭힘을 당한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제 3의 변인, 즉 조절변인에 의해 그 영향이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절변인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에

게 사회화의 모델이 되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모가 제공하는 애정적 가정환경은 긍정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기도 한다(서미정, 김경연, 2005). 부모에게서 받은 수용, 존중, 관심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Scaramella, Conger, & Simons, 1999)을 하기 때문에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이라는 부정적인 외현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을 한 아동·청소년들은 학대를 하거나 처벌을 자주 한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았으며(신희경, 2006; 이승출, 2012; Haynie et al., 2001; Schwartz, Dodge, Pettit, & Bates, 2000), 부모로부터 인정이나 존중을 받지 못하고 폭언을 경험하였으며(김진호, 2009; Correia & Dalbert, 2008), 가정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Peskin, Tortolero, Markham, Addy & Baumler, 2007).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부모와 애정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채진영, 2012)도 있듯이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가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면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이라는 보복적인 공격성이 가중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또래 괴롭힘을 가해하는 아동은 교사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며(이춘재, 곽금주, 2000), 교사로부터 받는 사랑, 신뢰, 지지는 또래 괴롭힘의 가해행동을 감소시키기도 한다(김연화, 한세영, 2010; 서미

정, 김경연, 2005). 이와 같은 맥락으로 또래 괴롭힘 가해 청소년과의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을 통한 상담과 면접을 실시하여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통해 김진호(2009)는 교사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자존심이나 상처를 주는 비난이나 비하하는 언어 폭력을 경험한 경우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있어서 부모 또는 교사의 역할에 주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또래에게 괴롭힘 가해 행동을 하는 아동은 비슷한 형태의 또래 괴롭힘의 피해경험이 있거나 아동의 주변에서 영향력이 있는 성인, 즉 부모와 교사에 의한 학대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모와 교사의 학대는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에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가중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국내외 연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집단의 비중이 커지는 아동후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4 ~ 6학년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의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을 예측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부모 및 교사 학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래 괴롭힘의 피해 경험에 가해 행동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부모교육프로그램 및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관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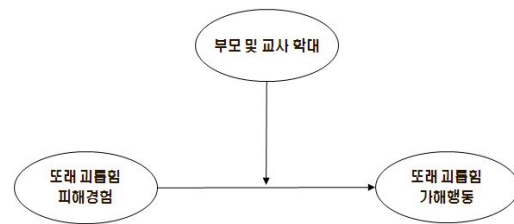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러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부모 및 교사 학대는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 및 교사 학대는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모집단으로 각 시도의 학생비율 분포에 근거하여 규모비례확률표집법을 이용하여 실시한 2010 한국청소년 안전(보호) 실태조사(Korean Survey on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Youth and Children in 2010, KSYC-Safety)에 참가한 2,643명의 자료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된 문항들에 대한 시스템 결측과 사용자 결측

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총 58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366명(62.8%), 여학생이 217(37.2%)명이었고, 4학년 164명(28.1%), 5학년 198(34.0%), 6학년 221명(37.9%)명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 이하 30명(5.1%), 고졸 148명(25.4%), 대졸 311명(53.3%), 대학원 졸 이상 68명(11.7%), 무응답 26명(4.5%)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16명(2.7%), 고졸 198명(34.0%), 대졸 288명(49.4%), 대학원 졸 이상 49명(8.4%), 무응답 32명(5.5%)이었다. 연구대상이 지각한 가정형편은 ‘못 산다’ 42명(7.2%), ‘보통이다’ 222명(38.1%), ‘잘 산다’ 319명(54.7%)이었다.

2. 측정도구

또래괴롭힘 가해행동

2010 한국청소년 안전(보호) 실태조사의 초등 4학년 대상 설문지 중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과 관련된 5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의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를 1점, ‘1년에 1~2회 정도’를 2점, ‘1년에 3~4회 정도’를 3점, ‘한 달에 1~2회 정도’를 4점, ‘일주일에 1~2회 정도’를 5점, ‘일주일에 3회 이상’을 6점으로 하는 6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총점 분포는 5~3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괴롭힘 가해행동을 자주한 것을 의미한다. Chronbach의 α 계수는 .78이

표 1. 측정변인의 질문내용,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 = 583)

잠재변수	관측변수	W	K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1. 최근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심한 욕설/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1.10	.20
	2. 최근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1.72	6.34
	3. 최근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까?	1.58	4.17
	4. 최근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집단 따돌림/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1.32	4.73
	5. 최근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사이버/휴대전화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1.49	3.17
부모 및 교사 학대	1.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99	3.76
	2.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21	4.16
	3. 최근 1년 동안 선생님께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93	5.74
	4. 최근 1년 동안 선생님께서 심한 욕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51	3.09
또래 괴롭힘 가해 행동	1. 최근 1년 동안 또래에게 심한 욕설/협박하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1.83	4.24
	2. 최근 1년 동안 또래를 폭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1.52	3.11
	3. 최근 1년 동안 또래에게 돈이나 물건 빼앗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1.57	4.91
	4. 최근 1년 동안 또래에게 집단 따돌림/왕따하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1.69	2.80
	5. 최근 1년 동안 또래에게 사이버/휴대전화 폭력하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1.59	4.88

었다.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2010 한국청소년 안전(보호) 실태조사의 초등 4학년 대상 설문지 중 또래괴롭힘 피해행동과 관련된 5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의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를 1점, ‘1년에 1~2회 정도’를 2점, ‘1년에 3~4회 정도’를 3점, ‘한 달에 1~2회 정도’를 4점, ‘일주일에 1~2회 정도’를 5점, ‘일주일에 3회 이상’을 6점으로 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총점 분포는 괴롭힘 피해경험이 5~3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을 자주 당한 것을 의미한다. Chronbach의 α 계수는 .74이었다.

부모 및 교사 학대

2010 한국청소년 안전(보호) 실태조사의 초등 4학년 대상 설문지 중 부모 및 교사 학대와 관련된 5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의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를 1점, ‘1년에 1~2회 정도’를 2점, ‘1년에 3~4회 정도’를 3점, ‘한 달에 1~2회 정도’를 4점, ‘일주일에 1~2회 정도’를 5점, ‘일주일에 3회 이상’을 6점으로 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총점 분포는 부모 및 교사의 학대가 4~24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및 교사의 학대를 자주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Chronbach의 α 계수는 .77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PASW 18.0

과 AMOS 7.0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은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서,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서, 각 문항의 정규성 분포는 왜도(skewness, W)와 첨도(kurtosis, K)를 통해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서영석(2010)은 과거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 회귀분석은 그 특성상 변수의 측정오차를 모형에 반영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주효과변수와 조절효과변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있는 구조방정식을 적용한 Ping(1996)의 2단계 접근법을 이용하여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및 교사의 학대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사용하는 Ping(1996)의 2단계 접근법은 예측변수와 조절변수가 모두 연속변수일 경우 회귀분석보다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Schumacker & Lomax, 2010). 상호작용항은 단일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각 지표변수들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는데, 이는 예측변수와 조절효과변수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함이다(서영석, 2010). 최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연구모형이 적합하게 구축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적합지수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GFI (Goodness-of-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부모 및 교사 학대와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의 관계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할 경우에는 먼저 자료의 정상성을 점검하기 위해 개별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해야 한다(정옥분, 2010). 왜도 < 2, 첨도 < 7이면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한 것(Curran, West, & Finch, 1996)인데, 표 1과 같이 본 연구의 모든 관측 변수들은 이 기준에 적합하므로 각각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본 연구의 관측변수인 괴롭힘 피해경험1 ~ 5, 부모 및 교사 학대 1 ~ 4, 괴롭힘 가해행동1 ~ 5 등 총 14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괴롭힘 피해경험 1 ~ 5와 부모 및 교사 학대 1 ~ 4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04 ~ .15이며, 괴롭힘 피해경험 1 ~ 5와 괴롭힘 가해행동 1 ~ 5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04 ~ .51, 부모 및 교사 학대 1 ~ 4와 괴롭힘 가해행동 1 ~ 5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04 ~ .20으로 각각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모든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5, .01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은 부모 및 교사의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음을 의미하고, 또래

표 2.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피해경험1	1.00													
2. 피해경험2	.39**	1.00												
3. 피해경험3	.23**	.20**	1.00											
4. 피해경험4	.31**	.20**	.12**	1.00										
5. 피해경험5	.18**	.07**	.15**	.10**	1.00									
6. 학대1	.08**	.12**	.05*	.06**	.05*	1.00								
7. 학대2	.15**	.08**	.11**	.12**	.08**	.58**	1.00							
8. 학대3	.11**	.10**	.05*	.11**	.04*	.28**	.22**	1.00						
9. 학대4	.13**	.11**	.08**	.07**	.05*	.13**	.22**	.31**	1.00					
10. 가해행동1	.35**	.23**	.14**	.10**	.10**	.12**	.12**	.17**	.20**	1.00				
11. 가해행동2	.15**	.22**	.15**	.04*	.11**	.12**	.07**	.11**	.16**	.49**	1.00			
12. 가해행동3	.04*	.04*	.29**	.04*	.04*	.04*	.04*	.04*	.04*	.16**	.20**	1.00		
13. 가해행동4	.08**	.05*	.12**	.18**	.11**	.07**	.07**	.12**	.16**	.22**	.24**	.18**	1.00	
14. 가해행동5	.11**	.04*	.12**	.06**	.51**	.04*	.07**	.08**	.04*	.18**	.23**	.23**	.27**	1.00
M	2.72	1.63	1.47	13.72	1.34	1.42	1.41	1.41	1.37	2.51	1.47	1.17	1.57	1.23
SD	1.48	.98	.82	1.34	.73	.80	.86	.83	.85	1.23	.69	.38	.78	.52

* $p < .05$, ** $p < .01$

괴롭힘 피해경험 또는 부모 및 교사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또래 괴롭힘 가해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부모 및 교사 학대의 조절효과

측정모형 분석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Ping(1996)의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관측변수의 정상성을 파악하였으므로, 1단계에서는 구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요인부하량, 분산 및 오차분산, 공분산 및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해야 한다. 먼저 측정모형(그림 2)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GFI

= .932, TLI = .947, CFI = .938, RMSEA = .098로 우수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으므로 이 모형은 수용할 만 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측정모형의 각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의 요인부하량은 .278 ~ .767이며,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모형에서 괴롭힘 피해경험, 부모 및 교사 학대, 괴롭힘 가해행동 등의 3개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들은 모두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잠재변수들 간 경로의 공분산과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괴롭힘 피해경험과 괴롭힘 가해행동 간 상관관계는 .521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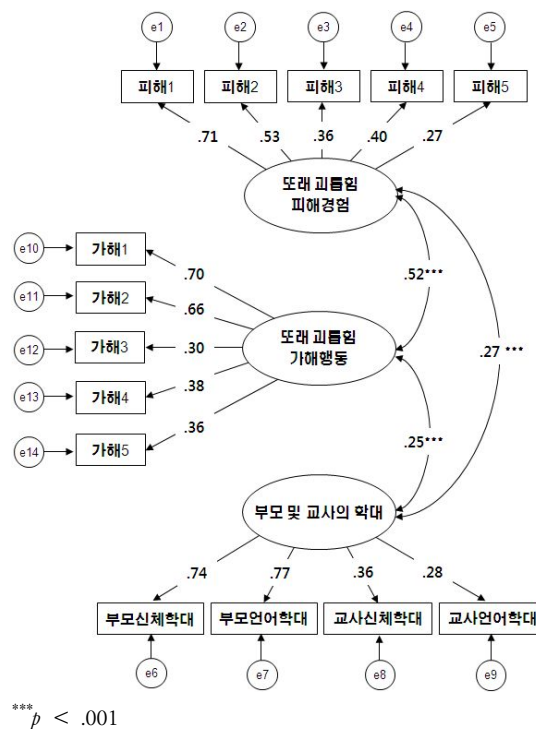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표 3. 측정모형의 계수 추정치

잠재변수	관측변수	B	β	S.E.	t	분산	오차분산
피해경험	→ 피해경험1	1.000	.705				.026
	→ 피해경험2	.405	.530	.024	17.026***		.007
	→ 피해경험3	.233	.362	.018	13.238***	.450	.005
	→ 피해경험4	.420	.399	.029	14.270***		.013
	→ 피해경험5	.147	.266	.014	10.208***		.004
부모 및 교사 학대	→ 학대1	1.000	.738				.017
	→ 학대2	.989	.767	.051	19.322***	.122	.011
	→ 학대3	.491	.362	.034	14.627***		.011
	→ 학대4	.378	.278	.033	11.495***		.011
가해행동	→ 가해행동1	1.000	.702				.017
	→ 가해행동2	.590	.659	.029	20.380***		.007
	→ 가해행동3	.130	.298	.011	11.793***	.333	.002
	→ 가해행동4	.380	.379	.026	14.581***		.009
	→ 가해행동5	.187	.363	.013	14.038***		.002

*** $p < .001$

표 4. 잠재변수 간 공분산과 상관관계

잠재변수 경로			공분산	상관관계
피해경험	↔	가해행동	.201	.521***
피해경험	↔	부모 및 교사 학대	.085	.271***
부모 및 교사 학대	↔	가해행동	.067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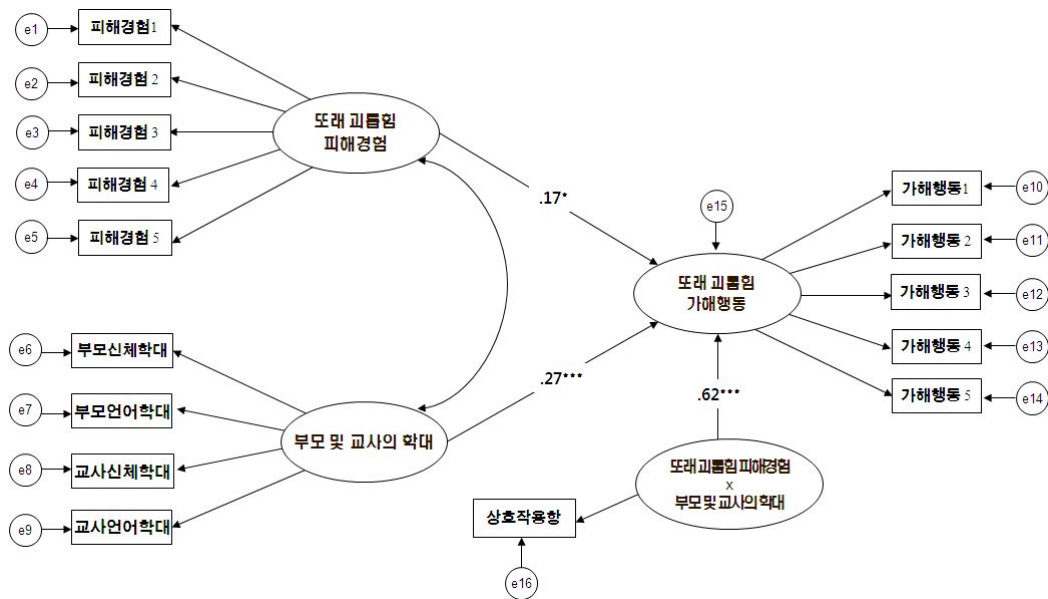
*** $p < .001$

조절모형 검증

각 변인들의 예상된 관계를 바탕으로 구축한 조절모형은 그림 3과 같으며 이 모형의 적합도는 $GFI = .907$, $TLI = .917$, $CFI = .908$, $RMSEA = .082$ 로 수용할 만 하였다.

조절모형의 검증을 위한 Ping(1996)의 2단계 접근방식의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산출한독

립변인인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조절변인인 부모 및 교사의 학대의 분산과 측정오차 분산을 이용하여 얻은 상호작용항의 분산값 .225, 상호작용항 지표변수의 요인계수 .315, 상호작용항 지표변수의 오차분산 .241를 각각 조절모형(그림 3)에 고정)시킨 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동의 괴롭힘 피해경험($\beta =$



* $p < .05$, *** $p < .001$

그림 3. 조절모형

표 5. 조절효과 상호작용모델의 계수 추정치

계수경로			<i>B</i>	β	S.E.	<i>t</i>
피해경험	→	가해행동	.076	.167	.036	2.102*
부모 및 교사 학대	→	가해행동	.482	.274	.063	7.599***
피해경험 x 부모 및 교사 학대	→	가해행동	.018	.616	.001	13.403***

* $p < .05$, *** $p < .001$

.17, $p < .05$)과 부모 및 교사 학대($\beta = .27$, $p < .001$)가 아동의 괴롭힘 가해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각각 유의하였으며, 상호작용항에서

종속변수로 이르는 경로($\beta = .62$, $p < .001$)가 유의하였으므로,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부모 및 교사에게 의한 학대가 조절하는 것을 나타냈다. 이는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이 부모 또는 교사에 의한 학대를 경험하였을 경우 또래 괴롭힘의 가해행동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1) \text{Var}(XZ) = \text{Var}(X)\text{Var}(Z) + \text{Cov}(X, Z)^2,$$

$$\lambda_X \lambda_Z = (\beta_{X1} + \beta_{X2} + \dots + \beta_{Xn})/n(X)(\beta_{Z1} + \beta_{Z2} + \dots + \beta_{Zn})/n(Z),$$

$$\Theta_{XZ} = \lambda_X^2 \text{Var}(X)\Theta_Z + \lambda_Z^2 \text{Var}(Z)\Theta_X + \Theta_X \Theta_Z \quad (\text{Var} = \text{분산}, X = \text{주효과변인}, Z = \text{조절효과변인}, XZ = \text{상호작용항}, \lambda = \text{요인계수}, n = \text{잠재변인 갯수}, \Theta = \text{오차분산})$$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또래 괴롭힘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심층적 탐색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4 ~ 6학년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부모 및 교사의 학대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4 ~ 6학년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부모 및 교사의 학대는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과 각각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을 하며, 부모 및 교사의 학대를 경험할수록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괴롭힘의 피해 경험과 아동의 사회화에 모델이 되는 부모와 교사로부터 받은 학대가 모방되어 또래 괴롭힘의 가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조유진, 2008; Sekol, & Farrington, 2010; Tritt & Duncan, 1997)와 일치하는 것이다.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피해경험은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기는 여전히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와 교사로부터 받는 영향이 아동의 행동에 반영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부모 또는 교사의 애정이 결핍된 부정적인 행동, 즉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을 통해 자신이 학습한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부적응/문제행동을 많이 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을 극복하고 가해행동을 감소시키는 주요원인(장영애, 이영자, 2007)이라는 것과 사춘기에 접어든 후기 아동기의 특징과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방식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오승환, 2007)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가하는 가해행동이 아동에게는 모델이 되어 학습된 그 가해행동이 또래 괴롭힘의 가해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것에 대해서 교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지지와 격려는 학교적응에 도움이 되며 자존감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김연화, 한세영, 2010)으로써 원만한 또래 관계 형성이 가능하므로 또래 괴롭힘의 가해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를 부모 및 교사 학대가 조절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부모 및 교사 학대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인한 가해행동은 부모 및 교사 학대가 심할수록 더욱 증가하였다. 이는 부모 및 교사의 긍정적인 지지가 또래 괴롭힘을 극복하고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을 낮춘다는 서미정, 김경연(2005)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부

모 또는 교사의 학대가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피해자/가해자의 연결을 감소시킬 요인을 찾아냈다는 것은 눈여겨 볼 사항이다. 즉, 또래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부모 또는 교사의 부정적인 행동 또는 지지의 결여 등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보복적인 반응으로 다른 또래를 괴롭히는 또 다른 또래 괴롭힘으로 이어가거나, 부모 또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해 나아간다는 것은 또래 괴롭힘이 증가하고 또 가해지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 예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관계자들이나 부모 및 교사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을 하고 가해행동을 한 피해자/가해자 집단이 피해자 집단 또는 가해자 집단에 비해 심리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피해자 집단보다 불안이 높았고, 가해자 집단보다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승환, 2007; 최용민, 이상주, 2003). 따라서 또래 괴롭힘의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으로 나타나는 아동에 대한 대책 방안이 매우 시급함을 인지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와 마찬가지로 또래 괴롭힘의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관계를 완충시키는 조절요인인 부모와 교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해결책의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부모나 교사의 애정적인 행동, 적극적인 위로와 지지, 격려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서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또래관계가 중요한 시기에 나타나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동 주변에서 가장 접촉이 많은 성인인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타인, 즉 또래와의 관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을 한 아동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적절한 대처를 한 경우 학교 내 또래 괴롭힘이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방기연, 이규미, 2009)를 바탕으로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원만한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최초의 사회화가 일어나는 가정에서의 성인인 부모, 또 학령기 아동으로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성인인 교사가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우선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옥분,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2008)은 국내 또래 괴롭힘 관련 연구 경향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과반수 정도가 개인적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고 보고하면서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하여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자나 가해자의 개인적인 특성 뿐 아니라 생태학적 접근의 의미로 부모와 교사가 보이는 부정적인 행동이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이 둘러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또래 괴롭힘의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이성식, 전신현, 2011)도 있듯이 부모 또는 교사 학대의 조절효과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학년이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증가할수록 또래 괴롭힘의 가해행동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신유림, 2007)를 바탕으로 부모 또는 교사 학대 역시 학년이 높아짐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 종단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또래 괴롭힘의 가해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원인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패널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측정된 항목의 수가 적어서 깊이 있는 측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강하여 좀 더 많은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또 심층면접을 실시한다면 더욱 질적인 자료를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연화, 한세영 (2010). 또래괴롭힘 행동경향성에 관련된 개인, 가족 및 학교환경변인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8(2), 95-111.

김진호 (200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인간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문용린 (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서울.

문용린, 이승수 (2010). 학교폭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4, 1-23.

방기연, 이규미 (2009). 학급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담임교사의 경험과 개입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167-188.

서미정, 김경연 (2005). 아동의 개인적 변인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3(4), 187-201.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신유림 (2007). 또래 괴롭힘의 피해 및 가해와 친구 관계의 관련성: 친구관계망, 친구관계 질 및 친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5), 75-83.

신희경 (2004). 사례연구를 통해 본 아동의 공격성의 개인차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8(1), 99-113.

신희경 (2006). 가해 청소년, 피해 청소년, 가해/피해 청소년 집단유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17(1), 297-323.

심희옥, 신유림 (2009). 또래 관계. *아동학회지*, 30(6), 195-208.

연합뉴스 (2012, 2, 10). “학교폭력 중 ‘왕따’가 가장 심각”.

오승환 (2007).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5(4), 74-98.

이성식, 전신현 (2011). 집단괴롭힘의 피해와

- 가해의 관계와 그 성별 차이. *피해자학연구*, 19(1), 207-226.
- 이승출 (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9, 116-135.
- 이춘재, 박금주 (2000).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와 특성. 서울: 집문당.
- 장영애, 이영자 (2007).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49-166.
- 정옥분 (2010). 아동연구와 통계방법. 서울: 학지사.
- 정옥분,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 (2008). 국내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경향분석. *인간발달연구*, 15(1), 115-137.
- 조유진 (2008).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개인내적 중재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9(5), 215-226.
- 채진영 (2012).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부모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1), 71-87.
- 최용민, 이상주 (2003).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0(4), 459-485.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oulton, M. J., & Smith, P. K. (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2(3), 315-329.
- Carney, A. G., & Merrel, K. W. (2001). Bullying in school: Perspective on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an international problem.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2(3), 364-382.
- Correia, I., & Dalbert, C. (2008). Belief in a personal just world of bullies, victims, and defenders. *European Psychologist*, 13(4), 248-254.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Espelage, D. L., Bosworth, K., & Simon, T. S. (2001). Short-term stability and change of bully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An examination of demographic, psychosocial, and environmental correlates. *Violence and Victims*, 16(4), 411-426.
- Haynie, D. L., Nansel, T., Eitel, P., Davis Crump, A., Saylor, K., Yu, K., & Simons-Morton, B. (2001).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Distinct groups of at-risk youth.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29-49.
- Nansel, T. R., Overpeck, M., Pilla, R. S., Ruan, W. J., Simons-Morton, B., & Scheidt, P. (2001). Bullying behaviors among US youth: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5(16), 2094-2100.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MA: Blackwell. ED.
- Peskin, M. F., Tortolero, S. R., Markham, C. M.,

- Addy, R. C., & Baumler, E. R. (2007). Bullying and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 symptoms among low-income black and hispanic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0*(4), 372-375.
 - Pikas, A. (1975). Treatment of mobbing in school: Principles for and the results of the work of an anti-mobbing group.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1), 1-12.
 - Ping, R. A. (1996). Latent variable interaction and quadratic effect estimation: A two-step technique us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9*(1), 166-175.
 - Scaramella, L. V., Conger, R. D., & Simons, R. L. (1999). Parental protective influences and gender-specific increases in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9*(2), 111-141.
 - Schumacker, R. E., & Lomax, R. G. (2010).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2000). Friendship as a moderating factor in the pathway between early harsh home environment and later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6*(5), 646-662.
 - Sekol, I., & Farrington, D. P. (2010). The overlap between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adolescent residential care: Are bully/victims a special categor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12), 1758-1769.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Tritt, C. & Duncan, R. D.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bullying and young adult self-esteem.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 Development, 36*(1), 35-44.
- 1 차원고접수 : 2013. 04. 19.
수정원고접수 : 2013. 05. 15.
최종게재결정 : 2013. 06. 04.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and Bullying -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Abuse by Parents and Teachers

Chae, Jin-Young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abuse by parents and teacher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and bullying behavior. The subjects were 583 fourth- to six-grade children (366 boys and 217 girl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Survey on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Youth and Children in 2010.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ages, Cronbach's reliability coefficient, and Pearson's correlations using PASW 18.0. In addition, Ping(1996)'s two-step approach was adopted in order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through AMOS 7.0.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bullying behavior reveal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both the peer victimized experience and abuse by parents or teachers. Second, the model proposed by this research, as revised,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illustrated the fact that the experience of abuse by parents or teachers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er victimized experience and bullying behavio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experience of abuse by parents or teacher increased the influence of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on their bullying behavior.

Key words : peer victimization, bullying, abuse by parent and teacher, moderating effect